

# 광주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박차

## 2022년까지 250억 투입 시험인증센터 건립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등 500개 일자리 창출

대용량 차세대 이차전지산업인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시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인 '대용량 전력 저장용 레독스흐름전지(RFB)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연구기관 등이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는 기반조성과 함께 연구기관의 테스트베드·시험인증 등의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

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레독스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RFB)는 기존 이차전지와는 달리 전해액을 별도 용기에 보관하고 펌프로 순환시켜 전극에서 전해액의 산화와 환원 반응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대용량 장주기 이차전지다. 용기 규모에 따른 전지용량 설계가 자유롭고 전해액의 주기적인 교체로 전지의 장기간 사용과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기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광주시와 전남대, 한국전지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한다.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조감도.

세부 사업내용은 ▲시스템 기술개발 및 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인증사업추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연구실적(Track Record) 확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등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5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146억원, 민자 24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

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2단계 사업예정부지 1만㎡에 건축면적 2250㎡ 규모의 레독스흐름전지(RFB)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시는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레독스흐름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보통신(ICT) 기반 인프라가 확대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원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설립으로 앞으로 신규 대용량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 기간단축 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무인공공자전거 명칭 선정 '타랑개' 내년 1월부터 선행

광주 무인공공자전거 명칭이 지역 사투리로 친근한 느낌이 드는 '타랑개'로 정해졌다. 광주시는 10일 무인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타랑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타랑개'라는 전라도 사투리인 '타랑개'는 광주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시민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무인공공자전거 명칭을 공모, 후보작 5건을 선정했다. 후보작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선작 수상자와 가장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한다. '타랑개' 무인공공자전거는 2020년 1월부터 상무지구 등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지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간담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군 회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군 회장 60여명은 도정 시책을

설명 듣고 도민안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 22개 시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 조현병 등 대응·예방 정신 응급 체계 구축

전남도가 조현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각종 사고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소방·경찰의 협력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한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모두 22곳(광역 1·기초 22)으로 미설치 지역인 신안군에도 내년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 인력도 1곳당 10명까지 늘리는 등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정신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보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군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24시간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13곳도 최근 재지정했다.

정신질환자 입원 시 행정비용과 외래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도내 정신 재활시설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미등락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도내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며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최고 수준 방역"

### 김 지사, 부단체장 영상회의서 신속 조치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중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해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최고 수준 방역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양돈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감염 경로를 면밀히 검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남은 음식물 급여능가가 잔반을 적정하게(80℃ 30분) 익혀 먹이는데 소독은 잘하고 있는지 매일 철저하게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소프, 편지, 택배 등 반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달

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을 사업 예비비를 확보해 조기에 설치하고, 울타리 국비사업이 북한 접경지역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전역 도비로 긴급 지원한 만큼 농가에 신속히 공급해달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42건, 몽골 11건, 베트남 2,80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했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있지 않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적조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도, 방제 준비...SNS 등 예찰결과 공유

전남도가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전남도는 10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적조대책위원회를 열고 6월 한 달간 적조 방제 집중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적조 연구, 예찰, 방제 전문가와 양식사업인 등 20명으로 구성된 적조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적조 상황을 평가하고, 적조 발생 시 지도·홍보 및 피해복구 지원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 예찰 및 효율적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전남은 지난해 적조 대응 총동원방제로 피해 없는 해가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유해성 적조 발생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고, 고수온

으로 인한 폐사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 저감 대책이 미흡하고, 표준양상기준 준수와 양식장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한 달을 적조 방제를 위한 집중 준비 기간으로 운영키로 하고, 초동방제를 위해 예찰선을 6척에서 12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SNS 등을 통해 예찰 결과 공유, 적조 상황 전파, 수온 정보 및 위기상황별 양식업장 관리 요령 안내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적조 대응 어업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 DJ센터서 폭염 대응 포럼

광주시가 효과적인 폭염 대응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각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폭염 대응을 위한 참여와 협력방안 제시'를 주제로 제3회 도시 폭염 대응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지역 폭염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대안 토론과 '시민들이 각 분야에서 바라본 폭염과 대응'을 주제로 사회복지, 산업, 농·축산업, 교육, 비정부기구(NGO) 등 산업 분야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문가 포럼 주제 발표는 ▲기후변화와 폭염(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시 폭염 현황 및 전망(국립기상과학원) ▲강원도의 기후 특성과 폭염 대응(한국기후변화연구원) 순으로 진행된다. /황애란 기자

<h1>임야</h1>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992㎡, 공유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H.010-6834-7400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정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규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공·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백성 302-0316-649511

###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제출만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 임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년단 1029호 상속한정승인  
상속인: 고훈자, 전기장, 전기삼, 전기현  
피상속인: 망 진석규

(640306-1\*\*\*\*\*, 2019년 2월 8일 사망)  
최후주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새상골길 295

법정상속인 고훈자, 전기장, 전기삼, 전기현의 피상속인 망 진석규의 재산상속유언에 있어 별지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9. 5. 31자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9. 5. 29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한정상속인: 고훈자(010-5367-1660)  
채권신고장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새상골길 295